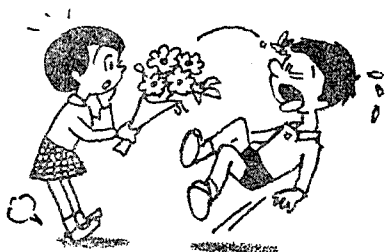


# 의학



## 속담풀이

### 죽을 병에도 쓸 약이 있다

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다. 현대의학에서는 사람이 한번은 죽기 마련이지만 우선 죽을 병은 없다는 신조아래 구멍의 치료법을 강구하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.

### 의원이 제병 못그친다

환자치료에 있어서는 냉철함과 성의가 요망되는데 자기가 자기의 가족들을 치료할 때에는 냉철함을 잃기 쉽고 성의는 과열하기 쉬우므로 결과적으로 좋지가 않다.

### 선무당이 사람 죽인다

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특수한 환자는 전문의에게 소개하여 넘겨주어야 한다. 질병의 치유에는 정

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.

### 약방에 감초

질병퇴치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약제의 수단을 말한다.

현대의학에서는 중조, 「아스피린」, 신경안정제, 항생제, 진정진통제 따위가 감초에 해당하는 약제라 할 수 있다.

### 알고도 죽는 해소병

해소병은 우리 나라의 속어로 오래된 기침병인데 현대의학으로는 만성 기관지염, 기관지확장증, 폐기종, 기관지천식, 심장천식 따위가 포함된다.

이러한 속칭 해소병은 오늘날에는 이론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병들이므로 이 속담은 현대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겠다.

### 고름이 살되나?

고름은 아무리 몸에 넣어 두어도 살이 쫄리가 없는 것이다. 당연히 고름은 빼내야 하며 가능하다면 고름주머니도 빨리 제거해야 한다. 예방적 치료를 강조하는 말이다.

### 긁어 부스럼

부스럼은 불결한 손으로 긁어서 염증을 더 하지 않게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독하고 고약과 함께 「가제」를 붙여서 상처를 보호하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점이다. 부주의와 과잉 치료에 대한 경고문이다.

### 노처녀가 시집가려니 등창이 난다

불행이 겹친다는 말이다. 어려운 증상이 최선의 가료로 해소되어 한시름 놓으려 하는데 또 다른 어려운 합병증이 생겨 어려움을 겪는 일이다.

### 덴데 털 안 난다

화상으로 모근(毛根)이 없어지고 결체조직으로 대체되므로 털이 안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.

### 맥모르고 침통 흥든다

간혹 진단이 애매할 때 어떤 특수

치료약제를 시험적으로 주어서 이 약제에 대한 반응으로 진단을 내릴 수는 가끔 있으나 이것은 명의(名醫)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아무나 함부로 할 일은 아니다.

### 죽음에는 편작도 할 수 없다

편작은 중국 노(魯)나라 때 사람으로 동양에서는 대표적 명의(名醫)로서 일컬어지고 있다. 그러한 편작같은 명의도 치명적인 병에는 별 수 없겠으나 치료담당자 자신이 할 말은 더욱 아니다. 잘못하여 또는 몰라서 환자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가짐과 겸려는 늘 지녀야 할 의사의 태도이다.

### 죽음에 들어 노소(老少) 있나?

일상 경험에서 나온 속담이긴 하지만 어린이가 죽을 경우에는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더 짙으므로 깊이 유의해야 한다.

### 들으면 병 안들으면 약

듣지 않아서 몰랐더라면 근심이 되지 않아 좋았을 것이 들어서 알게 된 후에 오히려 병이 되는 일이 많다. 치료인의 경거망동, 환자의 심정안정에 대한 경고적 용어다.